

# ‘전원 재계약’ KIA ‘전원 물갈이’ 두산

지난해 한국시리즈서 격돌 상반된 행보 눈길



KIA 타이거즈와 재계약한 헥터 노에시(맨 위), 팻딘(가운데), 로저 버나디나.

1패)에서 34이닝, 평균자책점 2.38로 최고의 모습을 보였다. KIA의 후반기 혼란 수습 일등공신이었다. KIA 외국인 선수 조함은 올해도 최고로 평가받는다.

두산은 지난해 정상 등극에 반발이 모자랐다. 내부적으로는 외국인 쪽에서 투수가 생겼다는 판단이었다. 지난해 210만달러로 외국인 최고연봉을 받았던 더스틴 니퍼트는 만 37세로 접어들면서 구위가 조금씩 떨어졌다.

큰 쪽의 연봉사감을 예고했는데 때마침 조쉬 린드블람이 시장에 나왔다. 두산은 1선바로 린드블람(145만달러)을 선택했다.

여기에 세스 후랭코프(85만달러)를 새롭게 영입했다. 2016년 18승을 거두며 감각적인 마이클 보우덴처럼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타자 역시 닉 에반스 대신 지미 파레디스(80만달러)를 잡았다. 강력한 두산 방망이를 감안할 때 에반스의 성적(타율 0.236, 27홈런 90타점, OPS 0.862)은 아쉬움이 남았다.

두산은 지난해 외국인 선수 때문에 당황했다. 니퍼트는 2016년 22승에서 지난해 14승, 보우덴은 18승에서 3승에 그쳤다. 합덕주 등의 성장이 있었지만 보우덴의 장기간 부상공백은 전반기 내내 집어 줬다.

반면 KIA는 헥터의 20승 등극과 팻 딘의 이닝이여 역할, 민승 외국인타자 버나디나의 합류로 최고의 한해를 보냈다.

흔히 외국인 선수는 KBO리그 적응은 타리그 성적과 정비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선수의 활약은 구단 역량의 첫 번째 잣대다.

스카우트 파트의 안목, 구단의 협상 능력, 코칭스태프의 적절한 기용, 프런트의 서포트 등 외국인 선수를 보고 데려오고 적응시키는 과정이 만만찮다.

올시즌에도 KIA와 두산의 힘겨투기는 외인 농사에서 판가름난다.

지난해 한국시리즈에서 격돌했던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상반된 행보가 눈길을 끈다. KIA는 외국인 선수 3명 전원과 일찌감치 재계약을 했다. 팀의 통합 우승에 큰 힘을 보탠 셋을 붙든 것은 당연했다. 반대로 두산은 전부 물갈이 했다. 올시즌에도 KIA와 두산은 '2강'으로 꼽힌다. 결국은 외국인 성적이 양팀의 가을 분위기를 결정

지울 것이다. KIA는 20승 투수(공동 다승왕) 헥터 노에시와 200만달러에 재계약을 했다. 외국인 선수 최고연봉 20홈런·20도루를 달성한 로저 버나디나(타율 0.320, 27홈런 111타점)는 110만달러에 2년째 KIA 유니폼을 입는다. 좌완 팻 딘은 9승7패 평균자책점 4.14로 다소 높지만 176이닝을 책임졌다. 특히 9월 5경기(2승

## 삼성, 이상민·서장훈 영구결번 발표 '철회'

구단 "당사자 이견, 협의 후 발표"

서울 삼성이 이상민 감독과 서장훈의 현역 시절 등번호인 11번을 영구결번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하지 2시간 만에 이를 철회했다.

삼성은 2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로 창단 40주년을 맞아 이상민 감독과 서장훈의 등번호 11번에 대한 영구결번식을 한다고 밝혔

다. 다음달 11일 오후 2시 창원 LG와 경기에 앞서 영구결번식은 갖기로 구체적인 일정까지 못 밝혔다.

그러나 불과 2시간 뒤 삼성은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며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다.

삼성 관계자는 "영구결번 당사자와 협의가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영구결번과 관련한 내용을 최종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감독은 1997~1998시즌 데뷔해 2007~2008시즌 중부터 2009~2010시즌까지 삼성에서 3시즌을 뛰고 은퇴했다.

서장훈은 2002~2003시즌부터 2006~2007시즌까지 5시즌 동안 삼성에서 뛰었다. 2005~2006시즌에는 정규경기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고 삼성을 챔피언결정전 우승으로 이끌었다.



## 손흥민, 감각적인 도움...팀은 무승부

손흥민(토트넘)이 천금같은 도움으로 표류하던 팀을 살렸다.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영국 로던니 퍼레이드에서 열린 뉴포트 카운티와의 2017~2018 잉글랜드축구협회컵(FA컵) 32강전에서 후반 교체 출전했다.

토트넘은 4부리그(리그2) 클럽인 뉴포트를 맞아 예상 밖으로 고전했다. 전반 38분에는 오히려 선제골을 빼앗겼다.

미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경기가 풀리지 않자 후반 시작과 함께 손흥민을 교체 투입했다. 후반 21분에는 텔레 알리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공격적인 행보는 후반 37분 결실

로 나타났다. 손흥민이 왼쪽 코너킥을 살짝 뒷발로 방향을 바꿔주자 골대 앞에 있던 해리 케인이 찰작하게 마무리했다. 손흥민은 패스에 견고했던 뉴포트 수비진이 순간적으로 무너졌다. 골과 다음없는 도움이었다.

간신히 패배를 면한 토트넘은 뉴포트와 후후 재경기를 통해 16강 진출권을 가린다. 재경기는 토트넘의 홈구장인 런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기성용이 속한 스완지 시티도 노츠 카운티(4부리그)와 1-1로 비겼다. 기성용은 전반 45분 선제골을 도왔지만 팀이 리드를 지키지 못했다.

## ‘김신욱 결승골’ 신태용호, 2018년 첫 평가전 승리

내일 자메이카 · 내달 3일 라트비아와 두 차례 더



김신욱이 27일 오후 10시(한국시간) 터키 안탈리아 마르단 스타디움에서 열린 몰도바와의 축구 A매치 평가전에서 헤딩골을 터뜨리고 기뻐하고 있다.

신태용호가 2018 러시아월드컵이 열리는 해에 처음 열린 평가전에서 몰도바를 따돌렸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27일 오후 10시(한국시간) 터키 안탈리아의 마르단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몰도바와의 평가전에서 김신욱(전북)의 헤딩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내용은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러시아월드컵이 열리는 새해 첫 평가전에서 거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승리였다.

대표팀은 현재 터키 안탈리아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갖고 있다. 이날 경기를 포함해 총 세 차례 평가전을 치를 계획이다.

이번 전지훈련과 평가전이 열리는 기간은 국제축구연맹(FIFA) 지정 A매치 데이가 아니어서 유럽에서 뛰는 손흥민(토트넘), 기성용(스완지) 등은 합류하지 못했다.

신 감독은 K리그 선수들 중심으로 팀을 꾸렸다. 월드컵 최종엔트리에 승선할 국내와 육석 가리기 성적이 강하다.

몰도바는 FIFA 랭킹 166위의 약체지만 짧은 시간밖에 손발을 맞추지 못한 한국 선수들은 쉽게 골문을 열지 못했다. 공 점유율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지만 교체로 투입된 김신욱의 후반 23분 헤딩골이 유일했다.

신태용 감독은 4-4-2 포메이션을 꺼내들었다. 진성욱과 김승태를 최전방에 세우고 2선에 이승기, 이찬동, 김성준, 고요한을 투입했다.

수비는 김영권과 김민재를 중심으로 측면에 홍철과 김태환이 섰다. 골문은 조현우에게 맡겼다.

한국은 초반부터 7-3 수준의 압도적인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골맛을 보지 못했다. 호흡이 맞지 않아 잔실수가 많았다. 신 감독은 조직력보다 육석 가리기를 위해 선수 개인의 컨디션과 기량을 점검하는데 집중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신 감독이 변화를 줬다. 후반 19분 김성준을 빼고 지난 시즌 K리그 도움왕 미드필더 손준호를 투입했다.

송흥이 트였다. 후반 23분 김신욱이 선제골을 터뜨렸다. 홍철의 코너킥을 머리로 연결해 몰도바의 골네트를 갈았다. 이후 추가골을 터지지 않았다.

대표팀은 30일 자메이카, 다음달 3일 라트비아와 두 차례 더 평가전을 벌인다.

뉴스

## 박항서 감독, 훈장 받는다...베트남 축구史上最이런일이

FIFA랭킹 112위 베트남, U23亞 챔피언십 준우승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12위, 축구 변방 아시아에서조차 변방 중의 변방... 베트남 축구의 현주소였다.

그러나 2018년 1월 베트남 축구는 박항서 마법을 통해 아시아의 중심에 우뚝 섰다. 베트남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이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박항서(59)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27일 중국 장저우 올림픽스포츠허브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대회 결승에서 연장 후반 종료 1분을 남기고 결승골을 내줘 아쉬운 1-2 패배를 당했다.

8강부터 준결승, 결승까지 3경기 연속으로 연장 120분 풀타임을 펼친 베트남 선수들은 패배를 직감할 수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결승골에 크게 실망했다. 원정 응원을 온 팬들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베트남 축구는 새롭고 강렬한 인상을 심었다. 자질 줄 모르는 체력과 승부욕, 끈질김으로 더 이상 변방이 아님을 입증했다.

동남아시아 국가가 AFC 주관 대륙대회에서 결승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 축구 전체로 보면 소강한 수준이다. 그동안 아시아 축구에서는 중동 혹은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이 대세로 자리잡았다.

베트남이 급부상한 중심에 박항서 감독이 있다. 이번 대회 내내 베트남 전역은 박항서 축구로 들쭉였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쓴 거스 히딩크(72) 감독에게 열

박항서 에도 주목한다. 축구 변방에서 화려한 부활을 알린 박 감독은 베트남의 영웅이 됐다. 베트남 정부는 박 감독의 공로를 인정해 3급 노동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선수단이 귀국하면 대우도 카퍼레이드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박 감독은 지난해 10월 베트남 사령탑을 맡았다. 성인대표팀과 U-23대표팀을 모두 책임지고 있다.

1988년 은퇴한 박 감독은 1996년까지 LG 치타스에서 코치로 있다가 1997년 수원 삼성으로 옮겼다. 2000년 11월 국가대표팀 수석코치가 된 그는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히딩크 감독을 보좌하며 4강 신화를 도왔다. 푸근한 외모로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의 가고 노릇을 훌륭히 해냈다.

이후 포항스틸러스, 경남 FC, 전남 드래곤즈, 상주 상무, 창원시청 등에서 지도자 길을 걸었다. 거센 항의로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아 비판도 들었지만 특유의 소신을 좋아하는 팬들도 적잖았다.

베트남의 선전은 향후 아시아 축구 판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선수들은 올해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주축으로 활약을 펼칠 예정이다. 향후 베트남 성인 축구를 이끌어 갈 재목들이다.

김환 JTBC 해설위원은 "베트남 축구가 어느 정도 잘할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동남아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 박항서 감독 97세 어머니와 부인을 한국에 두고 베트남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내용, 박 감독이 홀로 라커룸에 남아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 등 인간

뉴스

## IOC, 평창올림픽 러시아 개인 출전 169명 승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8일(한국시간) 개인 자격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러시아 선수 169명의 명단을 최종 승인했다.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는 지난 28일 개인 자격으로 평창올림픽에 출전하는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Olympic Athlete from Russia) 169명 명단을 발표했다. IOC가 이 명단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IOC는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

지는 않았지만 이 명단에는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의 강력한 금메달 후보인 예브게니야 메드베데바와 유럽피겨선수권대회에서 메드베데바를 꺾고 우승한 알리나 자기토프카 이름을 올렸다.

알려진대로 러시아로 귀화한 쇼트트랙 스타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은 명단에서 빠졌다. 빅토르 안은 IOC에 OAR 초청자 명단을 제출한 이유를 알려달라는 공개서한을 보냈지만, 시간상 구제를 받기는 힘들 전망이다.